

광주시-전남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이공계 여성 전문인력 양성·취업 활성화 등 지원
인공지능 콘텐츠 지도사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남대학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광주지역 이공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전략산업 진출 활성화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은일 전남대학교 부총장, 한은미 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안혜연 이사장, 박정희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여성 인적 자원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미취업·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취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앞으로 ▲이공계 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향후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과제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취업·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정보자원 공유 ▲이공계 여성인재의 생애단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역 채널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허브 확대 구축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상호 우호적 관계 지속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광주지역 이공계 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운영한다.

새로운 사업의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지도사 양성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 강사 파견 ▲정보통신기술(ICT) 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별(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케어) 취업캠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콘텐츠 지도사 양성과정'은 전문 직업훈련 과정으로 광주지역에 인력수요가 높은 전문 인공지능(AI) 강사 및 콘텐츠 제작·기획자를 양성한다. 교육생들은 광주광역시 초중고 인공지능(AI) 전문강사 혹은 인공지능(AI) 에듀테크 기획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습훈련을 받게 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네트워크 자원이라는 전남대의 힘과 풍부한 사업 프로그램 자원이라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남대학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광주지역 이공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전략산업 진출 활성화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힘을 모아 광주가 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사업에 있어 새로운 변곡점이 되고 지역 발

전과 과학인재 유입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부 국정과제...현안 실행력 높이자"

현안 정부 예산 반영·민선8기 비전 과제 완수도·시군 균형발전 등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역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과, 민선8기 비전·과제에 대한 막바지 검토 및 향후 집행계획 수립 등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발표가 임박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역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노력과, 민선8기 비전·과제에 대한 막바지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타 정부 정책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붙였다.

또한 "최근 범부처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농수산·중소벤처 등 분야의 필요한 인력을 잘 수급하게끔 전남형 인력 대책을 마련하라"며 "범부처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 결과 부족하면 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 건의토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8월 7일께 범부처장관을 면담, 외국인 인력 수급과 무안 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와 협업을 잘 해 8대 분야 100대 과제의 완성을 높여달라"며 "이는 앞

으로 4년간 도정의 기본이 될 과제이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로 뚫히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자"고 독려했다.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시군단위에 100억 원씩 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공모를 통해 지난 3년간 12개 시군을 선정, 핵심 동력을 지원했다"며 "남은 10개 시군에 대해선 공모를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일괄로 받아 계획과 균형발전 척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또한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이나 도립미술관처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시군에서 섬이나 숲공원 등 300억 규모 이상 대형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

으면 수시로 접수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선 "청내부터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을 잘 하고, 출장이나 휴가 복귀, 혹은 휴무일 후 출근 시 간이검사를 하는 등 공직사회부터 체계적인 차단 노력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도내 어려운 계층에게 간이키트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출시된 공공배달앱 '떡깨비'에 대해선 "민간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크다는 점을 잘 홍보하라"며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맹점을 빨리 늘려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